



벨기에 브뤼셀 흥합요리 점포가 밀집한 거리 전경.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노면전철(좌)과 현재 공사중인 대구 지상고가 경전철의 모습.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36> 시리즈를 마치며

사람과 자연 향하는 도시 디자인...광주 10년후 봤다

광주일보 연중시리즈 '세계창조도시를 가다'가 36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광주일보는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일본의 요코하마·나고야·가나자와, 영국 에딘버러·글래스고, 네덜란드 덴 하그(헤이그)·암스테르담, 프랑스 리옹·스트라스부르, 독일 프랑크푸르트·프라이부르크 등 11개 도시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책, 그로 인해 번모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도시민의 삶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보도했다. 이들 선진 도시는 국내외 도시들이 이례야 시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정책을 이미 10년 이상 앞서 추진했으며,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의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했다. 시리즈를 결산하면서 이들 도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요약·정리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녹지 조성·역사 보존...공해 줄고 사람 복직 추진사업 주민의견 수렴해 민원 최소화...도시 미래 함께 만들어

◇사람·환경·미래를 감안한 도시시스템

취재 대상이 된 유럽의 모든 도시는 노면전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 몇몇 도시는 과거 운행했다가 폐지한 노면전철을 장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재가설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 증가 속에 오히려 차선을 줄여 자동차의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발상'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노면전철을 중심으로 촘촘히 버스, 자전거를 연계하는 정책을 통해 운영적자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해물질 배출 감축 등의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었다. 노면전철은 도시의 모습도 바꾸었다. 노면에 잔디, 양측에 나무를 식재하면서 도시는 긴 녹색띠를 얻게 됐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에 나서 도시 곳곳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유도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물결이 넘실댈 만큼 시설과 운영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공원, 광장, 골목길 등 공공공간(Open Space)에서는 시민들의 여

유 있는 삶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시의 '아와 극장'이 되고 있었다. 벨기에 브뤼셀 그랜드 광장 주변 흥합(Moule) 요리점이 밀집돼 있는 골목길이 대표적이다. 박물관, 미술관, 역사관 등 문화시설과 함께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구도심 일대는 외지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며 변화함을 자랑했다. 역사문화유산은 단순히 유지·보존되는 '박제'가 아니라 도시의 중요 자산이자 도시의 개성을 발산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공성 기반 위에 개성을 가미하는 도시정부

인구 21만8000여 명의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도시 정부가 모든 개발을 주도, 철저히 개발 대상지역과 개발 불가능 지역을 구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발업체들의 지나친 수익 추구를 제어하면

서 1만5000ha에 달하는 토지, 즉 전체 도시 면적의 51%를 보존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도시를 감싸는 5개 구역의 녹지를 통해 바람길을 만들어 대기의 질을 유지하는 정책, 개발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정책 등으로도 유명하다. 요코하마 등 일본의 도시들은 방치되고 있는 방직공장, 은행 건물 등 근대문화유산들을 도시정부가 매입, 이를 문화시설로 탈바꿈시켜 주목을 받았다. 이들 시설의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맡기고 도시정부는 운영비 보조 등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역시 도시정부가 주도해 전체적인 도시 발전을 감안한 뒤 시행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는 무분별하게 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럽의 공공화장실은 모두 20~30페니(한화 300~500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공의 자산인 만큼 사용자가 유지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유럽인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여하려는 시민에게 열려 있는 도시

이들 모든 도시에서 주민참여는 기본이 되고 있다. 행정적인 처리 절차 속에서의 명목상의 참여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참여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도시정부가 추진 예정인 사업은 착수하기 전 공사기간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의사를 수렴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1912년 없어진 노면전철을 1991년에서야 다시 가설하면서 수백여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도출된 결과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통보해 주기도 했다. 단기간의 신속한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의 필수조건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라는 것을 수십 년에 걸친 개발과정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럽의 작은 광장.



30페니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유럽 공공화장실 입구.

www.makgeoliflifest.co.kr

기간 : 2011.10.27(목)~30(일) 4일간 장소 :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막걸리의 날' -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올해는 10월 27일)로 지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합니다.

2011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 대한민국 유명막걸리 모두 모여라!

- 개막식 : 10. 27(목) 14:00~15:00 / 특설무대
- 막걸리의 날 선포식, 햅쌀막걸리 술대개봉식
- 8도 막걸리 합주 간배식 등
- 전시·홍보행사 / 행사장 일원
- 8도 막걸리 명품관, 양조장별 산업전, 막걸리 특별 주제관, 막걸리 카페 등
- * 막걸리 시음은 공모를 통해 개발한 품격있는 전용전 사용(현장 대여)
- 문화공연 / 특설무대
- 국악공연, 비보이공연, 드림퍼포먼스, K-POP 커버댄스, 통기타공연, 대학생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
- 참여행사 / 행사장 일원
- 제6회 코리아컵 커피대회 경연대회, 막걸리 퀴즈쇼, 소맥호스트 경연, 팔씨름대회, 심형시 짓기, 막걸리 캠페인쇼, 탈 만들기 등 체험이벤트 진행

201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숨어있는 대한민국 명품주를 찾아라!

- 기간/장소 : 10. 28(금)~30(일) / 행사장내 별도 공간(품평회장)
- 참가 주종(8개 주종) : 국내에서 생산중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 시·도별 지역예심을 통과한 총 115개 제품이 출품되어 경합
- 선별 제품수 : 각 주종별로 4점씩(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32점
- 시상금 : 각 주종별 대상(大賞) 300만원 등 총 6,000만원
- * 심사장 주변에서는 전통주 복원관, 해외 바이어즈, 전통주 명인관,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만남 행사 등 다양한 행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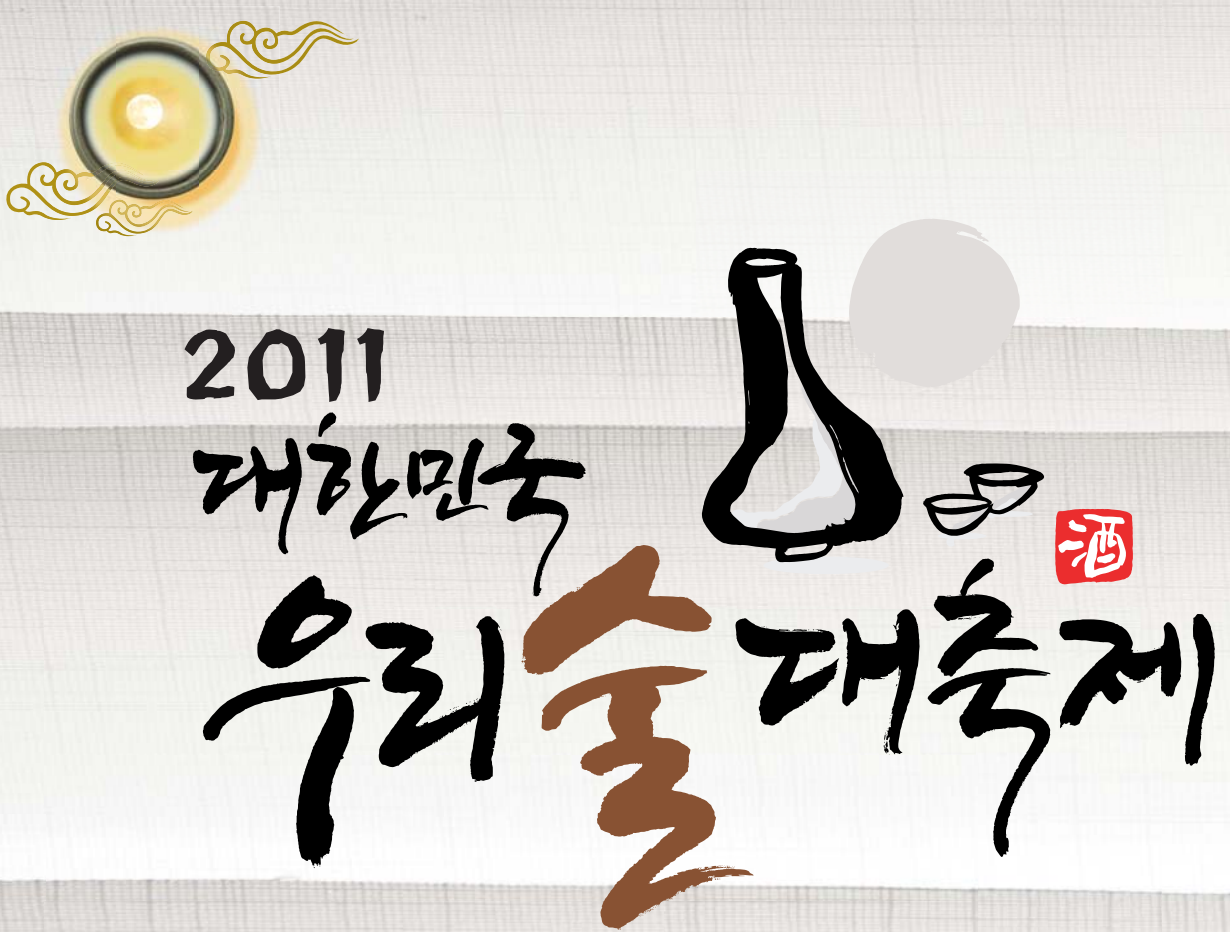
2011 햅쌀막걸리 출시 전국 동시 판촉전 프랑스에는 보졸레누보, 한국에는 햅쌀막걸리!

'막걸리의 날'(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인 10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양조장 및 유명 유통매장에서 2011년 햅쌀막걸리 판매를 개시하고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 2011년 햅쌀막걸리에는 정부에서 제작·보급한 통일된 햅쌀막걸리 표시 태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합니다.

- 판촉전 기간 : 2011. 10. 27(목)~12. 31(토)
- 장소(유통매장) : 전국 20,000여개소(대형마트, SSM, 편의점, 백화점 등)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 기업형 슈퍼마켓(SSM) :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굿모닝마트, 에브리데이, 키스클럽마트, 세이브존, 농협하나로마트 등
- 편의점 : 헤미리마트, GS 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ストップ 등
- 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2011 Korea Traditional Liquors Grand Festival